

창간
 1981년 9월 14일

연세의료원소식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NEWS

제993호
 2026년 10월 12일

발행인 금기창 편집인 윤영남 T 02.2228.1074~5 F 02.2227.7783 severance@yuhs.ac

고위험 스텐트 환자, 항혈소판 치료 시 허혈·출혈 위험 함께 고려해야

**NEJM(IF 84.5) 게재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
 출혈 위험 줄인 반면
 이중항혈소판요법
 허혈성 사건 위험 낮춰**

의대 김병국·이승준·이용준 교수(내과학) 연구팀은 약물용출스텐트 삽입 1년 후에도 허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은 사망·심근경색 등 허혈성 사건을 절반 이하로 줄인 반면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은 출혈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2026)' 주요 임상연구 Hot Line 세션에서 발표됐으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IF 84.5)'에 게재됐다.

관상동맥중재술로 약물용출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는 스텐트 안에 혈전이 생기는 스텐트혈전증과 심근경

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항혈소판요법 치료를 받는다. 시술 후 6~12개월이 지나면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혈소판제만 사용한다.

하지만 이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했거나 당뇨병, 만성콩팥병,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 등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스텐트 시술 1년 후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허혈성 사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경우 이중항혈소판요법을 연장하면 허혈성 사건을 줄일 수 있지만,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적절한 장기 치료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구팀은 고위험 환자에서 두 치료전략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인 'A-CLOSE 연구'를 진행했다.

2019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9개 기관에서 약물용출스텐트 시

술 후 12개월이 지난 환자 32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환자를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군 1601명과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의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군 1602명으로 무작위 배정해 24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허혈성 사건과 출혈을 합친 일차 복합 임상사건 발생에서는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군에서 5%,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군 5.1%로 두 치료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허혈과 출혈을 각각 나눠 분석한 결과, 두 치료전략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망, 심근경색, 스텐트혈전증 또는 뇌졸중을 합친 주요 허혈성 사건은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군에서 3.7%,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군에서 1.6% 발생했다.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군의 허혈성 사건 위험이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군보다 2.33배 높았다. 반면 임



김 병 국



이 승 준



이 용 준

상적으로 의미 있는 출혈은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군에서 18%,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군에서 4.1% 발생했다. 클로피도그렐 단독요법을 사용했을 때 출혈 위험은 연장 이중항혈소판요법보다 57% 낮았다.

김병국 교수는 "스텐트 시술 1년 후에도 허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이

중항혈소판요법을 이어가는 것이 사망이나 심근경색 같은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단독요법으로 전환하기보다 환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환자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장기 항혈소판치료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세계적 학술지 NEJM 연구 4편 게재**

〈관련기사 4면〉

HER2 양성 담도암에서 표적·면역항암제 병용 효과 우수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표적·면역항암제 함께
 새로운 1차 치료 전략 제시**

의대 이충근·최혜진 교수(내과학) 연구팀이 치료력이 없는 HER2 양성 진행성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트라스투주맵과 니볼루맵을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병용했을 때 객관적 반응을 55%, 1년 생존율 7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 IF 52.5)'에 게재됐다.

담도암은 췌시타닌·시스플라틴 항암화학요법에 면역항암제를 추가하는 방식이 1차 표준치료로 사용되지만 생존기간은 1년 남짓이다.

연구팀은 담도암 환자의 첫 치료부터 HER2 표적치료제 '트라스투주맵', 면역항암제 '니볼루맵'과 항암화학요법인 췌시타닌·시스플라틴을 함께 사용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HER2는 암세포 성장과 증식에 관여

하는 단백질로 담도암 환자 약 15%에서 나타나는데, 유방암과 위암 등에서는 주요 치료 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HER2 양성 담도암에서도 표적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 대부분이 1차 치료 후 암이 진행된 환자가 대상이다.

연구에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연세암병원과 국내 12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HER2 양성 진행성 담도암 환자 40명이 참여했다.

17개월간 추적관찰 결과, 환자 55%에서 종양 크기가 감소하는 객관적반응을 보였다. 40명 중 1명은 암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완전반응을, 21명은 종양 크기가 감소한 부분반응을 보였다. 암이 줄어들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인 질병통제율은 95%였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0.6개월이었으며, 6개월 무진행생존율은 80%, 1년 전체생존율은 72.7%로 나



이 충 근



최 혜 진

타났다. 치료 후 종양이 감소해 수술이 가능해진 환자도 2명 있었다.

종양 조직 분석에서는 HER2가 강하게 발현된 종양세포 비율과 종양 감소 정도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났다. 표적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1차 표준치료 연구에서는 객관적반응율 약 27%, 무진행생존기간 약 7개월, 1년 생존율 약 50%가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각각 55%, 10.6개월, 72.7%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HER2 양성 진행성 담도암 1차 치료부터 HER2 표적치료를 면역항암제와 항암화학요법에 추가한 첫 전향적 임상시험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 박창훈 후원자 47억원 상당 부동산 기부

연세암병원·어린이병원·의학도서관 발전기부금



고 박창훈 후원자가 약 47억원 상당 부동산을 기부했다. 추후 부동산 매각 대금은 연세암병원, 어린이병원, 의학도서관 발전기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기증 협약식에는 고 박창훈 후원자 형제인 박창근, 박창원 후원자와 금기창 의료원장, 최재영 의과대학장, 윤미진 의학도서관장,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천근아 어린이병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족대표 박창근 후원자는 "평생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오다 세상을 떠난 동생 박창훈을 기억하고 그 유지가 더 큰 가족인 사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학교법인을 운영하셨던 선친과 모친께서 평생 중요하게 여기셨던 교육과 헌신의 가치가 연세의료원 안에서 다시 꽃피울 수 있게 돼 유가족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금이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 전해지고 후학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고 박창훈 후원자님의 소중한 뜻을 이어 큰 결정을 내려주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한 분의 삶을 통해 남겨진 숭고한 나눔이 환자 치료와 회복은 물론 미래 의료인재 교육과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원자님 뜻을 소중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신규 당뇨병, 초기 중증도와 악화 속도가 췌장암 발생 위험 신호



정문재

의대 정문재·이민영(내과학), 장성인(예방의학) 교수, 연구지원부 유민희 연구원 연구팀은 신규 발생 당뇨병 초기 중증도와 단기간 진행 양상이 췌장암 발생 위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거



이민영

트(Gut, IF 24.6)’에 게재됐다.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이 췌장암 조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연구는 꾸준히 보고돼 왔지만, 진단 당시 중증도나 이후 악화 속도에 따른 췌장암 위험 차이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장성인



유민희

~2019년 자료를 활용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40세 이상 성인 11만 6064명과 비당뇨병 대조군 28만 6599명 등 총 40만 2663명을 최대 15년간 추적했다. 진단 당시 약제 처방과 이후 치료 변화를 당뇨병 초기 중증도와 진행 양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했다. 신규 당뇨병 환자는 진단 당시 치료 강도에 따라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무투약군 8만 1644명, 경구혈당강하제군 2만 7876명, 인슐린 주사군 6544명

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당뇨병 대조군과 비교해 췌장암 위험이 무투약군은 3.01배, 경구혈당강하제군은 4.32배, 인슐린 주사군은 5.6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당뇨병 발병 후 3년 이내 진단된 췌장암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비당뇨병 대조군과 비교한 3년 이내 췌장암 위험은 무투약군 4.75배, 경구혈당강하제군 9.44배, 인슐린 주사군 10.73배였다.

또 같은 수준의 치료로 시작했더라도 6개월 동안 치료 강도가 유지되거나 낮아진 환자보다 약물 추가나 인슐린 도입 등 치료가 강화된 환자에서 췌

장암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당시에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내 당뇨병 약물 치료를 새롭게 시작한 환자의 췌장암 위험은 비당뇨병 대조군 대비 6.5배로, 이는 진단 초기부터 당뇨병 경구약을 사용했지만 이후 치료 강도가 상승하지 않은 환자의 3.67배보다 높았다. 특히, 경구약으로 치료를 받다 6개월 이내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해진 환자는 비당뇨병 대조군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6.54배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성향점수 보정을 통해 주요 임상적 특성 균형을 맞춘 신규 당뇨병 환자 9만 331명과 비당뇨병 대조군 9만 331명 분석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난치성 두경부암 전이·면역회피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 찾았다



의대 박영민 교수(강남 이비인후과) 연구팀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연구팀과 함께 단일세포 전사체(scRNA-seq) 분석을 통해 전사조절인자 ETS1이 암세포의 전이와 면역 회피를 동시에 주도하는 핵심 인지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캔서 리

서치(Cancer Research, IF 22.6)’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해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의 중앙 내이질성을 구성하는 7개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을 규명했다. 이 중 상피세포와 중간엽세포의 특성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상피-중간엽이행(hEMT) 프로그램이 암세포 원격 전이 능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ETS1이 hEMT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핵심 인지라는 사실도 입증

했다. 유전체 결합(ChIP-seq) 분석 결과, ETS1은 50개의 hEMT 유전자 중 36~40개에 직접 결합해 암세포 전이 능력을 촉진했다. 실제 동물실험에서 암세포에 ETS1 단백질을 과발현시킨 실험쥐 전부에서 폐·간·신장 등 전신 전이가 나타난 반면, 대조군은 11%에 그쳤다(P=0.0004). 반대로 암세포 내 ETS1을 억제하자 전이 발생률이 87.5%에서 25%로 대폭 감소했다(P=0.04).

연구팀은 ETS1이 전이뿐 아니라

면역 회피까지 주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ETS1이 또 다른 전사인자인 STAT1과 면역관련 분자 PD-L1의 전사를 직접 활성화해 T 림프구 중앙 내 침투를 막고, 면역세포가 접근하기 어려운 면역 결핍형(immune-cold) 종양 미세환경을 조성했다. 실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976명 환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ETS1 활성이 높은 종양은 뚜렷한 치료 저항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4687개 화합물을 대상으로 대규모 약물 스크리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ETS1 고발현 암세포가 열충격단백질 억제제인 HSP90(알베스피마인, STA9090)에 선택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HSP90 억제제는 저산소유도인자(HIF1α)가 ETS1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ETS1 발현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상 면역을 가진 실험쥐에 HSP90 억제제와 항 PD-1 면역치료제를 병용 투여한 결과, 단독 투여군 대비 종양 성장이 유의하게 지연되고 생존 기간이 가장 크게 연장됐다(P<0.0001).

세브란스병원, 뉴스위크 세계 전문병원 종합 2위

신경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 국내 1위로 임상 경쟁력 확인
정형외과·내분비내과는 글로벌 톱10에 들어

세브란스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와 함께 발표한 ‘2027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2027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평가

에서 3개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며 임상 분야 수 기준 종합 순위 2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30여개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진 추천 ▲환자 보고결과지표(PROMs) ▲각종 인증 등을 종합해 13개 전문 임상 분야별 순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3개 분야

에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정형외과는 지난해 국내 2위에서 올해 다시 1위로 올라섰다. 세계 순위 역시 9위에서 6위로 세계단위 상승하며 세계 톱10을 유지했다. 신경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국내 1위 자리를 지켰다. 두 분야가 꾸준히 국내 최고 수준 평가를 이어가며 세브란스병원의 임상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계 순위에서는 정형외과가 6위, 내

분비내과가 10위를 기록하며 2개 분야가 세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내분비내과는 지난해 세계 12위에서 올해 10위로 두계단 상승해 톱10에 진입했다. 이밖에도 여러 임상 분야가 국내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신장내과는 국내 2위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심장혈관외과·심장내과·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종양학 등 다수 분야의 세계 순위도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보였다.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교직원 한마음으로 쌓아온 노력과 환자 중심 철학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주요 임상 분야 국내 1위와 정형외과·내분비내과 세계 톱10 진입은 구성원 헌신이 세브란스병원 경쟁력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대, 전산초·김모임 명예교수 흥판 제막

간호대학 7일 진리관에서 메폴 전산초·소연 김모임 명예교수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흥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의료원과 연세대 주요 보직자, 간호대 교수진, 동창회 관계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판 건립 추진 경과보고와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메폴 전산초 명예교수는 간호대 제2대 학장을 역임하며 간호교육과 학

문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인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전인간호 가치를 강조하고 후학 양성에 힘쓰며 연세간호 학문 토대를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소연 김모임 명예교수는 간호대 제5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대한간호협회장과 국제간호협회 회장,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다. 교육과 연구를 넘어 보건정책과 국제무대에

서 활약하며 우리나라 간호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명예교수가 학문과 교육을 넘어 사회적 실천으로 간호의 영역을 넓혀왔음을 되새기며, 두 선배가 남긴 정신과 가치를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동섭 총장은 축사를 통해 두 명예교수가 학문과 교육, 사회를 아우르는



실천으로 연세 가치를 구현해 왔으며, 이번 흥판이 두 사람 업적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상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세간호 120주년을 맞아 마련된

두 명예교수 흥판은 간호대 1층 로비에 설치됐다. 간호대는 두 명예교수가 남긴 발자취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연세간호 새로운 120년을 열어갈 예정이다.

조울증 환자 약물 감량 기준 밝혀

기분안정제·항정신병약물 각 20%, 50% 초과 감량 시 재입원 위험 높아져

의대 강성혁 강사(정신과학), 정선재 교수(예방의학) 연구팀이 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 투여 시, 급성기 대비 기분안정제는 20%, 항정신병약물은 50% 넘게 줄이면 재입원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분자 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 IF 10.4)' 최근호에 실렸다.

조울증은 치료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어도 기분안정제, 항정신병약물 등 용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며 재입원 위험이 커져, 증상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약물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 조울증에서는 두 약물

모두 조증, 우울증 치료와 재발 예방에 사용한다. 그럼에도 약물 감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울증 환자 약 2만명을 분석했다. 일부 환자가 중복된 기분안정제 투여군 1만 7686명과 항정신병약물 투여군 1만 8021명을 분석한 결과, 급성기 투여량보다 기분안정제를 20% 넘게,

항정신병약물을 50% 넘게 줄이면 재입원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제기된 임상적 의문에 대해 예방의학과 정신역학이라는 연구 방법론으로 검증해 결과를 도출한 융합 연구다.

정선재 교수는 "융합 연구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확인했다"며 "환



강 성 혁



정 선 재

자별로 급성기 투여량을 기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용량을 평가해 개인화 맞춤형 치료 전략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장 이식 환자, 규칙적 운동이 사망 위험 낮춰

이식신장 소실 및 사망 위험 감소 주당 빠르게 걷기 150분 효과적

의대 이주한(외과학), 윤서연(재활의학) 교수 연구팀이 신장이식 환자의 규칙적인 운동이 이식신장은 물론 환자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외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9)'에 게재됐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경우 꾸준한 운동이 신장 기능 저하와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동이 이식신장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는 대규모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신장이식 환자 1만 2175명

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눠 평균 7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조사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한 환자는 운동하지 않은 환자보다 이식신장 기능 소실 위험이 28%, 사망 위험이 15%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와 성별, 당뇨병·고혈압 등 동반질환, 신장 기능 등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보정한 이후에도 일관되

게 유지됐다.

연구팀은 운동 강도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빠르게 걷기 등 중등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규칙적으로 시행함이 가장 일관된 효과가 나타났다.

이주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장이식 환자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이식신장 생존과 환자 생존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주 한



윤 서 연

며 "환자 개개인 상태에 맞는 운동상담과 프로그램을 진료에 적극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 교실 참여 진로선택박람회 개최

의과대학이 지난달 22일 학생 진로 탐색을 위한 '제7회 연세의대 진로선택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를 살펴보고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윤인배홀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로비와 학습공동체 라운지 등에 마련된 교실별 부스 탐방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각 부스를 자유롭게 둘러보며 관심 있는 전공 분야 특징과 진로에 관한 정보

를 살펴봤다. 이후 윤인배홀에서 경품 추첨과 폐회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교실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진료·연구 분야와 향후 진로에 관한 정보를 한자리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승호 의대 진로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전공 분야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여러 분야를 직접 비교하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치대, 학생연구발표회 성료

치과대학은 지난달 29일 치과대학병원 강당에서 '2026학년도 치과대학 학생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총 7개 팀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 주제는 소아 구강 건강과 부모의 스트레스 간 연관성, 불소 농도에 따른 법랑질 변화, 인공지능 기반 합성 구강 사진 판별 등 기초·임상·융합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

최우수상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다양한 치과적 결과 간 연관성'을 연구한 본과 4학년 김준영 학생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코어레진 복합



재의 색조와 절단 방향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본과 2학년 이승빈 학생팀이 받았다.

정영수 치대학장은 "한 해 동안 연구에 전념한 학생들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이 함께 연구 성과를 나누게 돼 뜻깊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김준영 학생팀은 다음달 20일 열리는 '전국학생학술경연대회'에 연세대 치과대학 대표로 참가해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대 WHO 협력센터 국제 워크숍 개최



간호대학 WHO 협력센터는 최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Global&Population Health in collaboration with WHOCC Session'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비감염성 질환(NCDs)과 일차보건의료(PhC) 분야에서 간호 역할을 조명하고, 각국 교육·연구·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간호대 김수 교수와 인도 크리스천의과대학 산드릴라 그나티밤 학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일본·중국·가나·몽골 간호학자들이 참여해 각국 연구와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세인트루크국제대학교 에리카 오타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당뇨병 교육 중재 연구를 발표했다. 중국 난징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지아리 첸 학생은 당뇨병 전단계 대상자의 건강행동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가나 보건연합과학대학교 케네디 디에마 콘란 교수는 농촌지역 고혈압 자가관리 중재 사례를, 몽골 국

립의과학대학교 투야 수흐바트 교수는 공중보건간호 교육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국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호 교육과 일차보건의료 간호 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WHO 협력센터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한 국제적 경험을 토대로 서태평양지역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경 WHO 협력센터장(간호대학장)은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간호의 역할을 확대하고, 전 세계 간호 발전과 보편적 건강증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해서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대학 WHO 협력센터는 1988년 국내 최초 간호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됐으며, 2028년까지 일차보건의료 분야 간호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브란스, NEJM 연구 논문 4편 잇따라 게재

심장내과 교수진 연구 결과 세계 최고 학술지 NEJM 9개월여 동안 4편 게재

세계적인 학술지 NEJM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교수진 연구 논문 4편이 연달아 게재됐다.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F 84.5)은 미국매사추세츠의학회가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로, 1812년 창간돼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의학계에서는 영향력이 큰 학술지 중 하나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9개월여 기간 동안 4편의 연구 논문을 NEJM에 발표했다.

교수진은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Therapy for Atrial Fibrillation in Patients with Drug-Eluting Stents(교신저자: 박희남, 김중선/제1저자: 이승준, 유희태, 이웅준, 이상협) 논문을 통해 스텐트를 삽입한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항응고치료 단독요법이 출혈 등 부작용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8일에 발표한 Intensive LDL Cholesterol Targeting in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교신저

자: 김병국/제1저자: 이승준, 이웅준) 논문으로,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기존 70mg/dl이 아닌 55mg/dl로 더 낮게 잡는 것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확인했다.

올 8월에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6 유럽심장학회·세계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두 편의 발표를 진행했다.

▲8월 28일 Anticoagulation for Atrial Fibrillation with Intermediate Stroke Risk(교신저자: 정보영/제1저자: 김대훈, 유희태) 논문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크지 않은 심방세동 환자도 항응고제를 먹는 것이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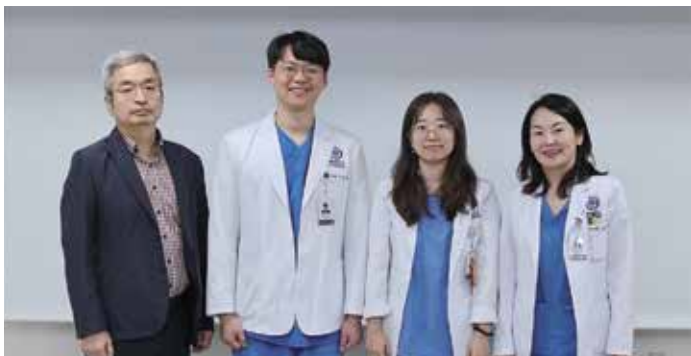
▲같은 달 29일 발표 논문인 Clopidogrel or Dual Antiplatelet Therapy in High-Ischemic-Risk Patients(교신저자: 김병국/제1저자: 이승준, 이웅준)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함께 복용하는 이중 항혈소판 요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면 참조)

이상학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

장내과장은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우수한 저널로 꼽히는 NEJM에 우수 논문 4편을 게재한 것은 국내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며 "학술적 성과와 임상적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장혈관병원은 연구 성과를 기념해 지난달 9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축하연을 열었다.

분당제일여성병원 장학금 이중주, 최영주 원생 선정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이 시상하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장학금 수혜자로 이중주, 최영주 대학원생이 선정됐다.

지난달 10일 연세암병원 흉완기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한성식 분당제일병원장(의대 90년 졸)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분당제일여성병원에서 기부한 산부인과학교실 장학기부금 재원에서 지원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남은지 주임교수는 "매년 산부인과학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시는 분당제일여성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산

부인과학 발전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는 산부인과학교실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식 병원장은 "후배들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며 산부인과학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번 장학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후배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제일여성병원은 산부인과학교실 후배 양성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500만원씩 장학기부금을 마련해 대학원 진학 전공의에게 지급한다.

실즈 시뮬레이션센터시설이용 프로그램 운영

간호대학 실즈 시뮬레이션센터는 '2021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5차년도이자 마지막 해인 올해 시설이용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강서대, 경인여대, 서정대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60명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마디세상병원, 서울부민병원, 청구성심병원 간호사 36명 등 총 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고충실도 시뮬레이션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실제 임상 상황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익혔다. 참가자들은 "단계 별로 잘 구성된 다양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임상 역량을 강



화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용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마켓' 성료

지역 업체 및 단체 30곳 참여 매출 일부 암센터 건립 기금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병원 야외광장에서 '상생마켓'을 열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마켓으로, 지역 업체와 단체가 상품을 판매·홍보하고 매출 일부를 용인세브란스병원 암센터 건립 기금으로 병원에 기

부했다.

행사에서는 업체 28곳과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로 사회적 기업인 용인시보호작업장, 참맛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해, 패션·잡화, 라이프스타일, 웰빙, 푸드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신규 간호사 입사 1주년 축하자리 마련

세브란스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간호국이 신규 간호사 입사 1주년을 맞아 축하자리를 마련했다.

세브란스병원 간호국은 지난달 17일 은명대강당에서 2025년도 신규 간호사의 입사 1주년을 축하하는 'The 1st Year Celebration Festival'〈사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과 이상길 연세암병원장, 권미경 노조위원장, 신혜경 간호부원장을 비롯해 동료 간호사 등 300여명

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이 지난 1년간의 경험과 성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형정 간호사(소아심장중환자파트)는 신규 간호사로 근무하며 겪은 경험과 성장 과정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어 프리셉터 홍선영 간호사(107병동)가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입사 1주년 축하 영상 상영, 케이크 커팅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혜경 간호부원장은 신규 간호사들 적응과 성장을 도운 관리자와 프리셉터, 선배 간호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들에게 "앞으로도 간호의 기본에 충실하며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15일 4층 대강당에서 '신규 간호사 1주년 기념식 및 SOS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1주년을 맞은 신규 간호사와



이들의 업무 적응을 돕는 SOS간호사, 임상실습 간호학생 등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모여 격려와 축하를 나눴다.

기념식에서는 신규 간호사 대표 2명(중환자1파트 이경태·132병동파트 김혜진 간호사)과 SOS 간호사 대

표 1명(신생아중환자파트 조성아 간호사)이 지난 1년간의 업무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어 신규 간호사들 소속 부서에서는 직접 제작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2026년도 임금협약 조인식

의료원 노사가 지난달 23일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2026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금기창 의료원장과 권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7월부터 3차

례의 본교섭과 1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번 임금협약 합의를 도출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본봉 40% 인상, 자기계발비 매월 3만원 지급, 상여금 40%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 등이다. 또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인력운영 관

련 제도 개선, 노사공익기금 및 복지기금 적립 등에 합의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준 교직원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이 자부심을 지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CSI 16년 연속 1위 위한 발전 워크숍 개최

세브란스병원 간호국 외래 고객경험관리위원회가 최근 서암강당에서 NCSI 16년 연속 1위 달성과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고객경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이야기를 시작으로 공감서포터즈 활동 사례, 부서별 고객 서비스 활동, 환자가 전한 칭찬 사례,

유관부서와 주요 보직자 응원 메시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진 ‘One Step AHEAD 전략’ 세션에서는 배정임 외래 고객경험관리 부위원장이 고객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외래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 용어를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과 ‘우리만의 다짐’ 공모전 및 행동 전략을 소개하며 고객 중심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상식을 통해 고객경험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며 고객 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환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관심과



한 걸음 더 앞선 배려, 환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One Step AHEAD’ 챌린지에 동참하며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외래 고객경험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실천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용인, ‘귀의 날’ 이비인후과 특강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지난달 9일 4층 대강당에서 귀의 날(9월 9일)을 기념해 이비인후과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 의대 신승호 교수(용인 이비인후과)는 ‘귀가 가려워요! 외이도염, 왜 생길까요?’를 주제로 외이도염 원인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의대 손은진 교수(용인 이비인후과)는 ‘AI 시대, 보청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를 주제로 보청기 기술 발전과 보청기 사용 과정에서 뇌 적응이 갖는 중요성 등을 설명



했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귀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손은진 교수는 “제60회 귀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특강이 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귀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대, 대학원생 주도 국제연구 세미나 개최

Emerging Voice of Nursing 국내외 30여곳 110여명 참여

간호대학 S-LEAP 미래간호인재 교육연구단은 최근 백양누리에서 제3회 대학원생 주도 국제연구 세미나(GSS)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간호대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6 연세국제간호학술대회(YINC)’와 연계해 마련됐다. ‘Emerging Voice of Nursing’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간호학 및 보건 분야 대학원생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국내외 30여개 대학과 기관에서 110여명이 참가했으며, 7개 국가·지역 대학원생 18명이 구두 발표자로 나섰다. 세미나는 ▲Innovative Nursing ▲Smart Nursing ▲Sustainable



Nursing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중환자실 재원기간 예측 등 새로운 기술을 간호·건강 연구에 접목한 연구가 소개됐다. 뇌졸중·파킨슨병 환자, 초기경력 간호사 재직 문제, 암 환자 돌봄제공자 불면 등 환자와 간호 현장 연구도 발표됐다.

대학원생들은 행사 운영에도 직접 참여했다. 교육연구단 참여 대학원생 5명으로 구성된 GSS 위원회가 행사준비를 맡았으며, 이현주·신재환·박수빈 대학원생은 각 세션 좌장을, 김기연·선

해미 대학원생은 발표자를 맡았다.

세션별 평가에서는 ▲Innovative Nursing의 켄 타이인(빈유니버시티, 베트남) ▲Smart Nursing의 저우톈쥔(푸단대학교, 중국) ▲Sustainable Nursing의 황양시(홍콩대학교, 홍콩)가 우수 발표자로 선정됐다.

이주희 교육연구단장은 “GSS는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국제 학술의 장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9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장기 등 기증 유공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국가 장기이식체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원 은 2024년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뇌사정주자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사자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의대 구성욱 교수(강남 신경외과)가 지난달 19일 제40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국내 대표 척추 학술단체다. 국내외 학술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 교류와 연구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척추신경외과학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이끌고 있다.

의대 김중선(내과학), 뇌연구소 김동욱 교수가 제24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중선 교수는 심방세동 환자의 장기 항혈전 치료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약물방출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1년 이상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서도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만 사용하는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연구 결과는 NEJM에 게재됐다.

김동욱 교수는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를 임상 단계까지 발전시킨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초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Cell에 게재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 열리며 상금은 각 5000만원이다.

의대 김현철 교수(예방의학)가 서울특별시 서울건강총괄관에 위촉됐다.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와 외부의 전문성과 시각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이다. 김 교수는 현재 제8기 서울시 명예시장(인구·저출생 분야)으로도 활동 중이며, G3 서울기획위원회 동행성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서울의 미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의대 정석훈, 김도균 교수(강남 진단검사의학과)가 지난달 9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국가항생제 내성감시체계 Kor-GLASS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연구진이 10년간 Kor-GLASS의 학술적 기틀을 다지고 감시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정석훈 교수는 2016년 시범사업부터 1·2차 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 활약하며 시스템의 표준화와 조기 안착을 이끌었다. 김도균 교수는 3차 사업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4차 사업(2026-2029년)의 수집센터 주관연구책임자를 맡아 감시망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 1억 5000만원

의대 가정의학교실 연구기부금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심장내과)
호흡기 및 중환자 의학연구기부금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가 최근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기부금 5000만원, 내과학교실 발전기부금(심장내과) 5000만원, 호흡기 및 중환자 의학연구기

부금 5000만원을 전했다.

황창연 대표는 “늘 세심한 진료와 따뜻한 관심으로 환자분들께 힘이 돼주고 계신 강희택, 유희태, 박영목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후원이 각 분야 연구와 진료 발전에 보탬이 돼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창연 대표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의료원과 소중한 첫 인연을 맺었다.

피치홀딩스 변윤성 대표 박세진 부사장 부부 1억원

어린이·안과병원 발전기부금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피치홀딩스㈜ 변윤성 대표, 박세진 부사장 부부가 최근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어린이병원 발전기부금 5000만원, 안과병원 발전기부금 2500만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25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변윤성 대표, 박세진 부사장 부부와 천근아 어린이병원 원장,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 의대 윤진숙 교수(안과학) 등이 참석했다.

박세진 부사장은 “윤진숙 교수님 진료를 통해 큰 위로와 안심을 얻었고, 어린이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가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실천하고 싶어 남편과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천근아 어린이병원 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이병원과 안과병원, 안과질환 치료비 지원까지 폭넓게 뜻을 전해주시신 변윤성 대표님과 박세진 부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후원금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환경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금옥 후원자 1억원

의료원 발전기부금

이금옥 후원자가 최근 의료원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다.

의료원장실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금옥 후원자와 금기창 의료원장, 윤영남 대외협력 처장, 김진아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금옥 후원자는 “평소 연세의료원이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후원이 의료원이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귀



한 뜻을 전해주시신 이금옥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후원자님의 소중한 마음을 잘 이어받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아이엠엠희망재단 1억원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재단법인 아이엠엠희망재단이 최근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 1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간접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이엠엠희망재단은 2013년 미래 인재 육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설립됐으며, 40개 이상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을 향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2023년 세브란스 사회사업후원금을 후원한 바 있다.

이원희 연세대 명예교수 1억원

간호대학 발전기부금

연세대 간호대학장을 역임한 이원희 연세대 명예교수(간호대 69년 졸)가 최근 간호대학 발전기부금으로 1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호스피스·완화간호 분야 차세대 인력 양성과 교육 체계화, 연구 역량 고도화, 국제적·사회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원희 명예교수는 “후배들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현경 간호대학장은 “이번 기부는 사회적 요



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간호 분야 교육과 연구를 한층 발전시키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연세간호가 시대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돼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유진텍코퍼레이션 회장 1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

이준호(㈜유진텍코퍼레이션 회장)가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강남 소화기내과 발전기부금으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후원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준호 회장과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조시현 진료부원장, 조강수 기획관리실장, 윤영훈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준호 회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세심한 진료에 항상 감사하며, 후원을 통해 강남세브란스병원이 더욱 발전하고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항상 깊



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병원이 더 나은 진료와 환경을 구축하는 데 후원금을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준호 회장은 이번 후원까지 총 2억원을 기부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THE 미래 발전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민 동문 1억원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이민 동문(의대 76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민 동문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에서 배우고 성장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

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번 후원이 오랜 세월 이어온 의대 전통을 계승하고, 새 의과대학이 앞으로 많은 후배들의 배움의 터전으로 자리 잡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서 다나이비인후과 원장 6500만원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 이비인후과
발전기부금

김은서 다나이비인후과 원장(의대 87년 졸)이 최근 의과대학 신축기부금(5020프로젝트) 30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전기부금 3000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발전기부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은서 원장은 “모교가 미래 의료를 이끌 인재

를 양성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의과대학 신축과 각 병원 발전을 통해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환자들에게 더욱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서 원장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발전기부금, 의과대학 신축기부금,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발전기부금 등을 전하며 꾸준한 모교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재외 동창 기부

재외 동창들의 기부 소식은 미주동창회와 UB(United Board)를 통해 전달되는 기부금으로 별도 코너를 마련해 소개합니다.

간호대학

- 정민경 미주동창(간호대 08년 졸) 발전기부금 \$1000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사로 전하지 못하는 기부 내용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문회소식

의대 총동문회, 8차 실행이사회의

의대 총동문회는 지난달 9일 2026년도 제8차 실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재범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실행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관련 도서 기증 및 배포, 세브란스상 시상, 광혜장학회 운영, 마종기문학상 시상식 등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원주동창회는 내년 1월 31일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 준비 상황을 알렸으며, 2027년도 골프대회는 6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원회는 2027년도 정기총회 준비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제1회 세브란스 동아리의 밤' 준비에 착수했다. 광혜장학회는 1982년부터 2026년까지 45년간 의대와 원주의대 학생 총 2003명에게 약 53억 3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기부자와 동문들에게 장학사업 성과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뉴스레터도 제작할 계획이다. 역사·문서위원회는 앞으로 제증포럼을 연 2회 운영하는 한편,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토론과 박형우 명예교수 강의 녹화도 추진할 계획임

을 알렸다. 간행위원회는 제278호 동창회보를 발행할 예정임을, 정보통신위원회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과 10월 실행이사회에서 새 홈페이지를 시연하고 대회원 대상 리뉴얼 기념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의료원 주요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됐다. 김성현 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제도 준비 상황, MRI 추가 도입 등의 소식을 전했다. 김지에 원주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의무부장 직제 신설과 제2병원 착공식 등 원주연세의료원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실행이사회에서는 향후 주요 일정도 공유됐다. 총동문회는 14일 제3회 마종기문학상 시상식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 1월 23일에는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말미에는 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이재범 총동문회장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파송이사 취임 축하연이 진행됐다.

제1회 광혜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 및 기부자 감사의 밤

재단법인 광혜장학회는 지난달 15일 연세동문회관 5층 소연회장에서 제1회 (재)광혜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 및 기부자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는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장학기금을 기부해 온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선후배 간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장학증서는 의대 학생 16명과 원주의대 학생 3명 등 총 19명에게 전달됐다. 의대에서는 양지민, 신동재, 이만하 학생 등 16명이, 원주대에서는 권덕영, 박태광, 이승준 학생이 장학생

으로 선정됐다. 장학생을 대표해 의대 의학과 3학년 이만하 학생과 원주의대 의학과 4학년 권덕영 학생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학생은 장학금이 학업과 임상실습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도움인 동시에, 선배들의 나눔과 응원이 담긴 뜻깊은 격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마음에 새기고 환자와 주변 어려움에 공감하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훗날 자신들도 후배와 이웃에게 도움과 기회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대 지역구 동창회 모임 활발

서울시 양천구, 동작구, 광진구 등 각지역의 대 동창회 모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양천구 동창회는 지난달 8일 동문 모임을 갖고 친모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한규(88년 졸), 구성모(90년 졸), 공석철(90년 졸) 등 총 13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동작구 동창회는 지난달 11일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해균(83년 졸), 배선우(85년 졸), 형운준(86년 졸) 동문을 비롯해 총 11명의 동문이 참여했다. 올해가

지 동작구동창회를 이끌어 온 정원석 회장(93년 졸)에 이어 내년부터는 박노옥 동문(94년 졸)이 신임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광진구 동창회는 지난달 16일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신성태(81년 졸), 홍경태(82년 졸), 황연미(82년 졸) 등 다양한 세대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문 간 세대를 넘어 친목과 화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1천만원 미만 기부건(재직 교직원 급여공제, CMS제외)

(2025.10.1.-10.31)

원목실 현금 및 후원금	곽수산나	곽호철	권미경	금기창	김민수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대문교회	무명
연산교회	최희원	하재욱목사					

의료선교센터 (건강지원 후원금, 발전기부금, 선교사 후원금, 의료선교후원금, 의료선교 교육기금)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온정멜로교회유지재단	(재)성서침례교회 (주)피트크루					
강남동산교회	강남비전교회	강신혜 고양동산교회	곽수산나	광주겨자씨교회	구윤희 김나희	김상동	
김정호 김현영	김호택 나리엘	나오미 난곡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늘푸른교회		
대구동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박희정 베이직처치	분당지구촌교회	사랑의교회	상당교회		
샘물교회	서울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은현교회	서울제일교회	세계로교회	손기혁 송탄중앙침례교회	
수색관리교회	수영로세기전교회	신생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선교부)	신전수 신촌중앙침례교회		
회 안강중앙교회	안광식, 임숙자 연대인사팀	연동세선	연회교회	예능교회선교	예정영		
광교회	오지영 온사랑교회	와우리교회	왕성교회	우면동교회	우원기 유인석 윤경애 은진원 은평광		
은교회	이경덕 이수정 이일학 인천성산교회	장병식 장석교회	장성구 장위제일교회	전주온누리선교회			
주내림교회	주안교회	즐거움교회	천안장로교회	천정법	최덕환 최두재 충신교회		
평안교회	평촌새중앙교회	하재욱목사	행복나눔교회	허승근	홍주의		

(2025.11.1-11.30)

의료원(발전기부금)							
KANG SHIN	SIDUSTAR PTE Ltd (Singapore)	강문정	강은미	강은지	강정민	강준영	
김경아,이은사,이민천	김경환 김기환 김대환 김민선 김선희 김소영 김영아 김영철 김원영 김유진 김윤희						
김정환 김호정 김효철 나혜을 노주환 류하민 민재원 박민철 박지수 박진영 서일 설창환 성실교회							
송유림 신규호 양정희 유남순 유상길 이강철 이경진 이규래 이대원 이민진 이상미 이사우 이은성 이치혁 이현재 이현주 정원근 정혜미 채수희 최승혁 최형철 허영근							

의과대학(발전기부금, 서클지원금, 신축기부금, 연구 및 연구소 기부금, 장학기부금)							
강은식 강종화 고윤우 권도윤 권민수 김규태 김기성 김기용 김도담 김도훈 김동욱 김명진 김문아 김미라 김민우 김병현 김성도 김성환 김세훈 김영경 김영국 김영기 김영원 김은경 김의현 김인성 김일영 김재민 김재원 김정환 김종관 김주희 김준식 김진영 김진형 김찬우 김철 김태진 김현규 김형중 김효진 김희연 나비푸드 나영무 나재웅 남익진 남재현 노수린 노은비 류동열 문성웅 문지애 문홍교 민경대 민소윤 박노옥 박대영 박병일 박신아 박성혁 박안순 박용지 박윤아 박재민 박정택 박정호 박주현 박지인 박진식 박찬 박헌정 박홍준 박훈 방동식 방인걸 배창환 배승 백승재 부영준 서장현 손기동 손기혁 손석한 손은주 손홍석 송금순 신윤석 신은아 신하영 신희진 심상수 안강현 안서원 안신기 안재은 안창수 안우익 양혁진 연세재활의학동문회 오원택 오정택 오현희 우찬영 원준용 위성호 유수미 유홍욱 유수영 윤용노 이강석 이관호 이광현 이남선 이미경 이민희 이상민 이상학 이상순 이승수 이연경 이영준 이영환 이용표 이원용 이윤희 이은소 이재민 이재훈 이정석 이정준 이정표 이정환 이종희 이차영 이창일 이혜연 이혜정 임길재 임성규 임성민 임시현 임정택 임준열 장상호 장성구 전동남 전지홍 정미식 정승원 정양기 정재봉 정재욱 정재호 정현택 조남선 조남훈 조민정 조선희 조순이 조은미 조인제 조철호 주진우 차경민 천근아 천선희 최봉수 최원준 최종혁 하태은 한승경 한애리 한재욱 함석진 함익병 하진국 홍민기 홍사민 홍순기 홍준호 홍창의 황성원 황수경							

치과대학 (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김선영 김성오 김종태 만갈웃커시 문원규 백석기 서병인 서우경 심동욱 양순봉 우상영 유준상 윤홍철 이연강 이장열 임선아 장정호 전혜림 정영수 정휘동 차신정 채문희 최도영 최준연 황규용 황두연							

간호대학(발전기부금, 장학기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이경희	조원정	최원미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발전기부금)							
노성찬 박현미 박혜경 안중근 은준석 의료법인남촌의료재단							
이희주 정우진 조수민 조현일 한순옥 한희중							

세브란스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현금 및 후원금)							
동본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뉴글로벌해운 (주)하나에프씨							
권혁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아현교회 김규원 김다경 김상욱 김승희 김수진 김영근 김윤홍 김은경 김재원 김정주 김정훈 김진 김태형 김현정 맹승렬 박민재 박병섭 박상현 박아영 박언정 박영춘 박지연 박효준 배은별 백소이 백승엽 백종욱 성웅용 송다영 송보미 송성광 신금식 신동복 신동희 안민기 안수지 안덕일 양종근 오지선 우성진 우지운 우재민 윤종화 은선진 이경민 이동식 이석희 이슬기 이승규 이은혜 이은희 이주연 이주희 이지은 이지혜 이준호 이택규 이현수 이홍철 임보미 임우영 임은경 전선영 정경석 정유림 정재균 정종한 정지은 정효섭 조민자 조신제 종교교회 주혜린 주호중 최서연 최석순 최우진 최지훈 최진호 최형철 한국소아임재단 해나뷰티 홍예준 황희경							

강남세브란스병원(건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연구발전기부금, 의료선교후원금)							
(주)디캡스 (주)샌드빅서전 MICA Volunteer Project	강동현	강병승	강선영	강성민	강윤주	강진숙	강현우
공재철 공형석 구인숙 권두환 권선옥 권소자 금종윤 김경석 김경식 김가숙 김기중 김다영 김대중 김도현 김동규 김동주 김동현 김라희 김만기 김명근 김명신 김미희 김민규 김병규 김보미 김상돈 김성태 김수광 김수연 김수영 김양안 김양자 김영근 김영상 김영섭 김영아 김용구 김용기 김용범 김원배 김유안 김유정 김장환 김종민 김종하 김주현 김준수 김지혜 김지환 김지훈 김찬용 김철원 김충진 김태연 김호영 김효권 김효동 김효선 김효숙 김희정 나상규 남기승 노동주 노영태 노태규 문순임 문영일 문윤재 문은희 문지미 박경민 박다운 박명자 박명화 박문규 박미경 박새람 박선영 박소현 박수진 박승호 박아영 박왕건 박윤선 박윤희 박은하 박종민 박종훈 박준석 박진아 박진옥 박진희 박찬우 박채수 박태현 박해선 박희영 방명환 배승남 배재욱 변기현 변지원 서봉권 선진기(전주) 성공재 성산교회 손주익 손태경 송대훈 송민선 송용배 송재현 송종현 신소는 신용원 신은택 신은혜 신인철 신자선 신형진 심재용 안도현 안철민 양우선 양윤보 양정윤 염소연 연세대맑은내과 염창환 우동호 원상재 유영주 윤경희 윤상진 윤승백 윤재희 이근만 이기련 이동순 이명자 이문기 이미화 이민우 이분화 이상주 이상혜 이수천 이승현 이시우 이애경 이양관 이영지 이옥순 이웅식 이윤영 이은정 이장우 이정민 이종민 이창호 이철우 이종근 이태희 이홍우 임성규 임성우 임정현 정미옥 장성구 장수민 장인선 장재호 전누리 전대근 전수영 전용철 전하라 정기영 정광익 정대호 정대희 정명일 정연수 정재한 정준근 정준표 정지호 정재일 지상원 진예림 진정현 진희준 채경아 천준영 천인철 천동희 천민호 최경태 최기욱 최성현 최소래 최소원 최수희 최승호 최승호 최솔 최윤영 최자영 최재남 최종혁 최준원 최준희 최민호 최홍식 최희원 추적금 클라리스파 하늘씨앗교회 하영란 허수창 홍범기 홍인경 홍정석 황성준 황연향 황인에 황혜진							

용인세브란스병원(건축기부금, 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원목실 목회기금)							
기수진 김광연 김기원 김대원 김태양 박강미 박근애 박수영 박시는 박주현 분당지구촌교회 비룡전자(주) 쓰인 축제를만드는사람들 아현중앙교회 안연옥 염효영 오수진 용인시보호작업장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주일예배원금 이기찬 이상현 이성현 이세미 이주용 이종열 정영준 정준혜 정종훈 필그림교회 한인철 한정혜 한지경							

치과대학병원(사회사업후원금)	최지유
-----------------	-----

연세암병원(발전기부금, 원화의료센터 후원금)							
SIDUSTAR PTE Ltd (Singapore)	가재정	강민경	강선영	강성희			
강정석 구기욱 김기세 김남희 김도원(전자전자기9)	김미수 김바름 김상희 김세연 김소현 김은하 김지혜 김창무 김창호 김재현 김태은 김희진 노의정 문승복 문지혁 박다현 박준수,박연준,김연정 박지수 서예준 신유승 신윤섭 심승주 양희진 엄진주 오예섭 유지원 윤명희 이병호 이상순 이선경 이소라 이만나 이은숙 이종례 이지현 이진우 이희경 임정영 임현성 정혜영 전혜영 정인혜 정준희 정지호 정혜철 정호식 조미영 지상원 천천교회 최서희 최선재 하영주 한민영 한성준 한진우 하광수 황은지						

재활병원(발전기부금, 장애인의료재활후원금, 장애인사회재활후원금)							
연세의료원	김태연	박창일	유준희	육근미			
윤도웅 이루네 이원미 이지는 임성규 장성구 정연수 조성숙 진경련							

심장혈관병원(발전기부금, 사회사업후원금)							
고종석 구본환 구철회 권순연 권지은 김명옥 김미진 김봉섭 김형수 김혜빈 더가족사대문교회 박우현 배명일 배한수 백소이 서금순 서이준 송익석 송태선 심영재 심영훈 안지아 안형이 윤인자 은영표 이수민 이승일 이재한 이재혁 임희철 정지연 조영은 지현경 진순자 푸른들 하재욱 홍성석							

안과병원(발전기부금)	문송복
-------------	-----

노사공익기금, 연세대 학생 점심 식사비 지원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점심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해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달 22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용한 연세대학교 교목실장과 이학선 사무부처장, 박말이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수석부위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 운영위원회는 2017년부터 후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연세대 학생의 점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심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25명의 학생이 2026년도 2학기 점심 식사비를 지

원받는다.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은 2005년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으로 매년 노사가 각 1억원씩 적립하고 있다. 노사는 앞으로도 힘을 합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한 영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면

저자 |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 것일까.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신간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면’을 통해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질문을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풀어냈다.

책은 특정 개인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 자체가 아닌 ‘동성애 행동’에 초점을 맞춰 관련 의학 논문과 학술 연구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지, 진화론 관점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실제 동성애는 무엇인지, 미국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에서 동성애가 제외된 과정은 어떠한지 등을 차례로 다룬다.

특히 동성애 원인을 둘러싼 기존 연구와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한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면 다른 원인은 무엇인지, 관련 연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제시돼 왔는지 등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다양한 학술 자료와 함께 풀어낸다.

저자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타

고난 상태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바라보며,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노력하는 과정과 신앙, 정신 치료·상담 등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가정 교육과 자녀 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책은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자체보다는 저자가 검토한 의학적·학술적 자료와 관점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성애 원인과 행동, 관련 정신의학적 논의를 살펴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저자 시각에서 관련 연구와 주장을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문지사/256쪽/24,000원]

강남, 2026 척추병원 심포지엄

강남세브란스 척추병원이 지난달 11일 대강당에서 제14회 심포지엄을 열고, 초고령 사회에 맞춘 척추질환 치료 최신지견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 시대, 척추질환 환자’를 위한 통합평가·치료·회복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과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 의료진이 참석했다.

김용욱 병원장 축사와 박정윤 척추병원장 개회사로 시작한 심포지엄은 고령 환자의 신체 변화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최신 수술 전략, 그리고 성공적인 회복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료 전 과정을 폭넓게 다뤘다. 초기 평가와 관련해서는 고령 환자



에서 근감소증을 놓치지 않는 법과 비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약물 사용 주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이어 최소침습 수술 적용 범위와 다중 병변 치료 전략, 수술 과정에서 과소평가하기 쉬운 요인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진료협력팀 김민주 간호사가 ‘경증 환자의 회송, 회복기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변화하는 의료 전달 체계 속에서 안전한 치료 환경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김모임간호학연구소, ‘연세건강이음’ 프로그램 성료

간호대학 김모임간호학연구소는 지난달 9일 창조관에서 지역사회 노인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2026-2차 연세건강이음’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재가노인복지기관 소속 노인 98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노년기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과 운동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체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에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연세건강이음’을 지역사회 노인까지 확대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행사는 조은희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의 환영사와 김유리 서울시 서대문

구 재가노인복지기관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황혜은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감염전문간호사가 ‘노년기 건강을 위한 감염예방’을 주제로 교육하고 손 씻기 뷰박스 체험을 진행했다. 박동혁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운동’을 주제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은희 소장은 “이번 교육이 지역 사회 어르신들이 감염 예방을 위한



건강행동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과 간호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심장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5일 4층 대강당에서 세계 심장학의 날을 맞아 지역 개원의를 대상으로 ‘제3회 심장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의대 정인현 교수(용인 심장내과)와 분당21세기의원 김한수 원장이 좌장을 맡은 첫 번째 세션은 ‘부정맥과 판막질환: 임상 현장의 핵심’을 주제로 진행됐다. 의대 박제욱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실신과 어지럼증, 의대 양필성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심방세동, 의대 김민관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판막질환의 심장조음과 검사와 전원 환자 선별, 의대 임소민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심부전 환자의 호흡곤란을 주제로 강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의대 김철식 교수(용인 내분비내과)와 서울삼성내과 이상수 원장이 좌장을 맡아 만성질환 관리

의 최신 트렌드를 다뤘다. 의대 김철식 교수(용인 내분비내과)가 심장환자의 당뇨 관리, 의대 권유진 교수(가정의학)가 심혈관 질환 환자의 비만치료, 의대 이오현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고혈압 관리, 의대 김용철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새로운 진료지침에 따른 이상지질혈증 치료를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의대 조덕규 교수(용인 심장내과)와 서울세로운내과 의원 이동훈 원장이 좌장을 맡아 ‘심혈관계 주요 질환의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의대 이태임 교수(용인 재활의학과)가 비심인성 하지 부종, 의대 조덕규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만성 관상동맥 증후군, 의대 이오현 교수(용인 심장내과)가 말초동맥질환과 복부 대동맥류, 의대 백민철 교수(용인 신경과)가 경동맥 플라크와 협착의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의학도서관, 근거에 기반해 답변하는 AI 시범 운영

의학도서관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근거 기반 생성형 AI ‘UpToDate Expert AI’를 의료원 산하 전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진·연구자·학생의 의학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연구·의학교육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검토를

거친 임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해석하도록 지원한다.

의학도서관은 AI가 의료진 임상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연구자 의학 정보 탐색과 교수·진·학생 교육·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 분야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며 정

보 신뢰성과 실제 활용 효과를 검증하고, 의료원 전반의 AI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미진 의학도서관장은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자원 제공이 중요하다”며 “교수진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